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ime Shared with Parents and Children

우석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학과
조교수 李昇美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李基榮

Dept. of Home Economics Woosuk Univ.
Assistant Prof.: Seung-Mie, Lee
Dept. of Consumer Studies Seoul nati. Univ.
Prof.: Ki-Young, Lee

〈 목 차 〉

- | | |
|------------------|---------------|
| I. 문제 제기 | IV. 결과분석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time shared with parents and children. The three specific questions are asked. (1)How much time do parents and children share with? (2)What kind of effects do the demographic factors and the psychosocial factors have on the time shared with parents and children? (3)And how can the families be classified into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 time shared with parents and children?

For the empirically proved answers, the 161 full-time housewife couples and the 174 wife employed couples in Seoul and Kyoungki-do are surveyed with a self reported time diary and a structured questionare. Such statistical methods as frequency, percentage, mean, tobit analysis,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re used to analyze the data.

Main findings from this empirical study can be summarised like this.

* 본 논문은 첫 번째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분임.

First, the two largest parts of the time shared with parents and children are eating and TV watching.

Second, the eldest child's age, degree of wife's education, the number of children, wife's employment status, family income, degree of the family cohesion, the couple's attitude toward marriage and role salience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various kinds of time shared with parents and children.

Third, the families are classified by the time shared with parents and children into three types.

type 1 : the family shared least time with,

type 2 : the family shared passive leisure with,

type 3 : the family shared active leisure with.

Type 3 has very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his type of family's eldest child is younger than any other family's, and this type of family has a full time housewife. And their family cohesion is higher and their couple's relationship is oriented more companionship.

1. 문제 제기

가족을 구성하는 부모와 자녀는 다양한 가정생활을 통해 공유의 경험을 하게 된다. 즉 부모와 자녀의 공유는 가족의 정서적 기능이나 여가기능, 그리고 사회화의 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가족의 결속이나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주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욱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되어 부모와 자녀 각각이 상이한 생활세계를 경험할 뿐 아니라 과거에 비해 가정의 기능이 변화된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공유방식은 가족 정체감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의 공유는 여러 조건에 의해 규정되고 제한받고 있다. 우선 결혼과 가족,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부터 민주적이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개인주의 성향으로의 변화, 그리고 자녀 역시 순수한 애정의 대상으로 양육되는 관계의 변화 등은 부모와 자녀의 공유 내용을 규정한다. 또한 여가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가족단위의 여가생활이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부모자녀의 공유에 대한 요구가 다

양해지고 있다.

한편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부모자녀의 공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조건으로 작용한다. 소득의 향상에 따라 상품화된 생활수단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증대되는데, 이는 개인의 시간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배분하게끔 함으로써 공유시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혼여성의 취업과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부모자녀의 공유를 규정하는 이상과 같은 사회구조적 맥락이 모든 개별 가족에게 동일하게 투사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각자가 처해 있는 나름대로의 상황적 조건이 다를 뿐 아니라 종단적인 발달과정상에서 요구되는 발달적 과업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가족의 내부적인 조건이 사회구조적 맥락과 통합되면서 부모자녀의 공유방식에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라는 객관적 도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어떤 활동에, 어느정도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자녀의 공유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공유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자녀 공유시간의 개념과 공유활동

부모자녀의 공유시간은 가족 공유시간의 일부분이므로 먼저 가족 공유시간의 개념을 살펴보면 가족 공유시간이란 동일한 장소에서 가족원 두사람 이상이 동일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 공유시간 중 부모자녀의 공유시간, 즉 부모와 자녀가 객관적으로 상호간에 어느정도의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부모자녀의 공유시간은 동일한 장소에서 부모와 자녀 한명 이상이 동일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어떤 활동에 시간을 함께 하는가는 생활시간영역의 구분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① 생리적 시간 - 집에서의 식사, 신변에 관한 일, 의료 등.
- ② 가사노동시간 -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세탁, 시장보기, 가정관리, 자녀돌보기
- ③ 여가시간 - TV시청, 음악감상, 가족단란(가족원과의 대화 및 잡담), 취미 및 오락, 운동·산책, 여행, 스포츠관람, 친구·동료와의 만남, 가족이나 친척방문, 사회활동, 종교활동 등.

2. 이론적 관점

1) 체계론적 관점

가정자원관리이론의 토대를 이루는 체계론적 관점에 의해 공유시간문제가 체계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자녀의 공유시간은 가족의 요구와 자원에 의한 관리활동으로 파악된다. 관리활동에 대한 요구로는 부모자녀의 공유를 증가시키는 촉진요인과 공유를 감소시키는 제약요인으로 구분된다. 촉진요인은 가족공유를 더 많이 하게끔 자발적인 동기유발을 하는 것으로서, 자녀에 대한 가치, 결혼에 대한 가치관, 역할중요도와 같은 가치관을 들 수 있다. 또한

공유를 감소시키는 제약요인으로는 부인의 취업여부를 들 수 있다. 또한 가족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는 소득이나 실물자산과 같은 비인적 자원과 가족응집성,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 자원을 들 수 있다.

2)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관점

경제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가족원의 시간 사용을 연구한 이전의 많은 경제학적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활동에 시간을 얼마나 배분하는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졌을 뿐 시간을 누구와, 즉 혼자 사용하는 시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인가, 함께 보낸다면 그 대상은 배우자인가, 자녀인가, 가족원 모두인가, 아니면 가족원 이외의 다른 사람인가 등 시간 사용의 질적 측면에 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구자들은 오히려 공유시간과 혼자 보내는 시간이 완벽하게 대체된다고 가정하여, 가장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혼자서,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공유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학자들은 공유시간이 단독시간보다 훨씬 더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시간이 자녀나 친구보다 배우자와 공유될 때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가정한다. 즉 만약 혼자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에 더 많은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다면, 공유시간이 혼자 보내는 시간보다 만족도가 더 클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시간의 가격인데, 공유시간의 가격은 활동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시간 가격의 합이므로 공유시간은 단독시간보다 훨씬 더 비쌀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단독시간과 공유시간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Bryant & Wang, 1990).

이와 같은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시간배분문제의 분석은 효용극대화의 원리에 의해 각 개인이 배분하고 있는 시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공유시간가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시간의 가격이 단독시간의 가격보다 비싸지만 공유시간이 단독시간보다 더 효용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유한다는 지적에서와 같이 개인

이 배분한 시간의 성격을 규명해줄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경제학적 관점에 의해 가계소득이나 자산이 시간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가계소득이나 자산이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 그 공유활동의 성격·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재의 성격이나, 아니면 수요가 감소하는 열등재의 성격이나를 구분해 줄 수 있다.

3) 가족발달론적 관점

가족은 가족의 형성, 발전, 소멸이라는 자체의 발달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가족의 발달단계마다 개인의 발달과업을 포함한 가족 특유의 발달과정을 경험한다. 즉 가족원은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마다 가족의 유지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과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가족에 부여되는 발달과업은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가족의 발달과업은 가족에 대한 내적·외적인 요구와 기대를 근원으로 하여 가족이 특정한 단계에서 형성하는 가족정체감에 의해 형성된다. 즉 가족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족 내부로부터의 요구와 기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내적 요구란 가족원 상호간에 발생하는 요구와 기대를 의미하며, 외적 요구란 사회의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으로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인식되는 역할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가족은 이들 내적·외적 요구를 조절해 나감으로써 가족과 개인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유영주 외 2인, 1993:68).

따라서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발달과업은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의 양 뿐만 아니라 공유시간의 활동을 결정하는 기제로 작용하므로, 가족발달적 접근을 부모자녀의 공유양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관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은 생활시간영역별로 어느 정도인가?

둘째, 사회인구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은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와 자녀의 공유양상은 생활시간영역을 기준으로 어떻게 유형화되며, 유형화된 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와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시간일지조사표와 자기기입식 질문지로 구성된다. 시간일지조사표는 하루 24시간을 15분 간격으로 구분하여 구성한 것으로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의 시간사용과 공유대상을 부인에게 기입하게 하였다. 또한 질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족 특성, 사회심리적 변인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부인과 남편 모두에게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다음과 같다.

1) 결혼관

결혼관은 남편과 부인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결혼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결혼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권희완(1992), 이성희(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토대로 제도적 결혼관과 우애적 결혼관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에 관한 신뢰도검증을 한 결과 제도적 결혼관척도는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투인의 경우 0.52, 남편의 경우 0.54였으며, 우애적 결혼관척도는 부인의 경우 0.48, 남편의 경우 0.53으로 나타났다.

2) 남편의 역할중요도

역할중요도(role salience)란 가족, 취업, 지역공동

체 성원으로서 개인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나 상대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원과의 공유시간에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관련 역할과 가족역할로 제한하였으며, 이 두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남편에게만 질문하였다.

각각의 역할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ird, Bird & Scruggs(1984)의 척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① 가족역할 중요도 : 배우자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소득제공자로서의 역할¹⁾, 자녀(아들)로서의 역할.
- ② 취업관련 역할중요도 : 전문적인 조직의 구성원, 직장과 관련된 사적 모임참여.

각각의 역할이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질문하였으며, 각각의 응답은 “매우 중요하다”에 5점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는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가족역할 중요도와 취업관련 역할중요도의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각각 0.64, 0.55로 나타났다.

3) 자녀에 대한 가치

자녀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적 자본으로 본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김성희, 1996)에서 사용된 척도 중 사회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만을 선정하여 각각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5점을,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는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검증결과 사회적 가치척도의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부인의 경우 0.46, 남편의 경우 0.42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가치척도는 부인의 경우 0.43, 남편의 경우 0.49로 나타났다.

4) 가족응집성

가족응집성이란 가족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지나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척도는 Olson 등(1985)의 FACESIII 척도 중 가족응집성척도로서, 이 척도를 사용한 국내연구(전귀연, 1996; 최연실, 1996)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의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리커트척도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부인의 경우 0.87, 남편의 경우 0.88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1) 표집 설계

가족의 공유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부인의 취업여부 및 취업의 직종을 고려하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먼저 전업주부가정의 경우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소득수준과 연령을 고려하여 다단계 층화 할당표집을 하였다. 취업주부가정의 경우는 취업과 가정의 영역이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취업에 의한 시간제약이 가족의 공유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용이한 점을 기준으로 취업주부의 직종을 생산직, 사무직, 전문기술직과 같은 공식부문의 종사자로 제한하였다. 여기서 전문기술직의 경우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등교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연구소의 연구직, 교수, 기업체 간부 등을 중심으로 직종별 취업비율을 고려하여 각 직종을 대표할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당표집하였다. 사무직의 경우 역시 금융기관 종사자, 공공기관이나 대학에 근무하는 사무직을 중심으로 할당표집하였다. 또한 생산직의 경우는 수도권(부천, 안산 등)의 공단에서 사업장을 선정하여 할당표집하였다.

1) 선행연구(Bird, Bird & Scruggs, 1984)에서는 소득제공자의 역할을 취업관련 역할로 분류하였는데, 이와 같은 역할 분류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6가지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소득제공자의 역할이 가족관련 역할로 묶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남성이 소득제공자, 즉 돈을 버는 일을 가족을 위한 역할로 인식한다는 점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역할에 대한 지각이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자료의 수집

질문지문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1996년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질문지 50부를 배포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연구자와 대학생 15명을 조사요원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대상자를 방문해서 시간일지표와 질문지의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응답자 자신이 기입하고 조사자가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400부를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것 중에서 부실기재된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335부가 사용되었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4)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과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크론바하 알파계수, 상관관계분석, Tobit 분석,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32~335, %)

변 인	구 분	%	변 인	구 분	%
부인의 연령	20대	7.8	부인의 직업	전업주부	48.1
	30대	50.1		생산직	15.2
	40대	32.8		사무직	17.0
	50대 이상	9.3		전문기술직	19.7
부인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7.5	남편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3.0
	고졸	40.1		고졸	21.7
	전문대졸	7.5		전문대졸	6.6
	대졸 이상	44.9		대졸 이상	68.7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15.5	실물 자산*	5천만원 미만	16.4
	200-299만원	30.6		5천-1억 미만	15.1
	300-499만원	36.9		1억-2억 미만	28.1
	500-999만원	14.3		2억-5억 미만	28.4
	1000만원 이상	2.7		5억 이상	12.0
첫 자녀의 연령	만 5세 이하	22.4	자녀수	1명	23.3
	6-11세	27.2		2명	67.5
	12-17세	23.2		3명 이상	9.2
	18세 이상	27.2			
취업주부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미만	8.1	남편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미만	3.7
	40-44시간	27.2		40-49시간	36.5
	45-49시간	31.2		50-59시간	28.8
	50-59시간	24.3		60-69시간	18.0
	60시간 이상	9.2		70시간 이상	13.0

* 실물자산은 무응답 43사례를 제외한 292사례임.

** 취업주부는 174사례임.

IV. 결과분석 및 논의

1. 생활시간 영역별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실태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실태를 생활시간영역별로 살펴보기 위해 생리적 시간 중에서는 식사를, 가사노동시간은 일상적 가사노동-조리, 설거지, 청소, 세탁-, 자녀돌보기, 장보기로 구분하고, 여가시간은 적극적 여가활동, 대화·단란, TV시청으로 구분하였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공유시간과 주당 공유시간 실태는 다음과 같다.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 실태를 보면 생활시간 영역에 관계없이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갈수록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이 점점 더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시간영역별 특성을 보면 요일에 관계없이 식사와 전체 여가, 그 중에서도 TV시청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가족이 공유하는 여가시간의 대부분이 TV시청이라는 점이다. 가족이 TV를 함께 시청한다는 것은 오로지 가족원 각자가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TV를 보는 동안 함께 있는 가족과 얘기를 나눔으로써 가족간의 대화나 정서적인 교류가 어느정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것이 매우 제한적이고 부차적이다. 즉 공유하는 대상간에 높은 의사소통의 개방성을 경

험하거나 긴밀한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것을 공유의 본래적 의미로 볼 때, TV를 가족이 함께 시청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공유의 의미라기보다 최소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따라서 개별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 즉 가정생활이란 개인생활 중심의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일 뿐 아니라 가족공유가 있다고 해도 가족이 함께 밥먹고, TV보는 등 소극적 공유의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 자녀의 공유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첫 자녀의 연령, 부인의 교육수준, 자녀수, 부인의 취업여부, 가계소득, 실물자산을 선정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이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한명 이상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심리적 변수로는 남편과 부인의 결혼관, 남편과 부인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남편의 역할중요도, 남편과 부인의 가족응집성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1) 부모 자녀의 공유 식사시간

부모 자녀의 공유 식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표 2〉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실태

(N=335)

활동 내용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주당 공유시간	
	평균(분)	참여율(%)	평균(분)	참여율(%)	평균(분)	참여율(%)	평균(분)	참여율(%)
식 사	41.1	72.5	49.9	78.0	85.2	90.1	340.3	95.8
일상적 가사노동	0.7	1.5	1.8	3.0	8.5	10.1	13.9	12.8
장 보 기	0	0	8.0	6.6	19.2	14.0	27.2	18.8
자녀돌보기	1.4	2.7	4.4	6.3	6.7	6.0	18.3	10.4
전체 가사노동	2.2	4.2	14.2	14.6	34.4	25.4	59.4	34.3
적극적 여가	3.0	3.3	31.6	15.8	105.4	44.2	152.0	49.3
TV 시청	51.9	47.8	93.7	61.8	123.3	72.2	476.4	87.8
대화·단란	7.9	12.8	14.3	16.7	24.7	25.7	78.4	37.9
전체 여가	62.8	55.8	139.5	71.3	253.4	88.4	706.8	93.7

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부인의 취업여부와 부인의 가족응집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방향성을 보면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부인의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부모 자녀가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인의 취업여부의 영향은 주부의 취업에 의한 시간의 제약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부인의 가족응집성의 영향은 부인이 가족의 결속을 높게 인식할수록 부모자녀 모두가 함께 하는 식사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남편의

가족응집성은 공유식사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2) 부모 자녀의 공유 가사노동시간

부모와 자녀가 일상적 가사노동을 함께 하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가계소득, 부인의 우애적 결혼관, 남편의 가족역할 중요도, 부인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인의 가족응집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계소득의 부적 영향은 가족이 함께 하는

<표 3> 생활시간영역별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변 수	생활시간 영역						
	식사	일상적 가사노동	자녀돌보기	장 보 기	적극적 여가	대화/단란	TV 시청
	모수추정치	모수추정치	모수추정치	모수추정치	모수추정치	모수추정치	모수추정치
사회인구학적 변수							
첫 자녀의 연령	-0.574	4.846	-27.781***	-11.003**	-20.311***	2.869	9.660*
부인의 교육수준	-9.150	23.301	-7.892	13.966	2.908	32.639	-50.314+
자녀 수	-1.727	-41.804	34.965	-29.745	-67.400	-89.155*	-78.885
부인의 취업여부	-68.732*	34.439	-83.199	-17.643	-131.365*	-119.975**	-170.358**
가계소득	-0.089	-0.390*	-0.340	0.012	0.251+	-0.036	0.194
실물자산	0.071	0.030	0.095	0.101	0.103	-0.155	-0.061
사회심리적 변수							
부인의 우애적 결혼관	-2.699	13.190*	-8.924	-4.564	-2.617	3.553	2.789
제도적 결혼관	2.091	2.210	-11.552	12.696	7.198	6.209	-9.029
남편의 우애적 결혼관	3.771	-9.381	28.989*	7.275	10.643	8.703	6.889
제도적 결혼관	2.753	-9.856	-10.764	-15.716+	-25.902*	0.561	11.764
남편의 취업역할중요도	0.948	-1.640	-63.889*	-12.836	-6.991	-33.403+	55.464*
남편의 가족역할중요도	0.406	30.691*	10.526	-4.513	10.772	23.512	9.607
부인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가치	4.774	15.824*	-12.200	4.046	-7.449	-10.633	-6.012
정서적 가치	0.623	-10.549	15.393	10.789	5.919	6.878	15.991
남편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가치	-2.058	-2.020	19.584	7.168	-14.677	14.630	3.899
정서적 가치	-12.238	-9.402	-7.307	-0.048	-3.886	-0.021	-17.546
부인의 가족응집성	7.596*	14.355*	-18.631+	-1.272	4.667	13.052*	11.714
남편의 가족응집성	1.853	-6.549	18.192+	4.594	-3.047	-2.618	-20.335**

+ p < 0.1 * p < 0.5 ** p < 0.01 *** p < 0.001

일상적 가사노동이 열등재적인 성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가계소득이 낮은 경우 경제적 비용이 들지 않는 음식만들거나 설거지, 혹은 청소나 세탁과 같은 일상적 가사노동을 가족이 함께 하지만,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일상적 가사노동을 상품으로 대체를 하고 다른 활동-예를 들면 적극적 여가-을 가족이 선택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가족공유의 변화가능성의 한 측면을 예측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부인이 우애적 결혼관을 지향할수록 가사노동을 주부의 일로만 여기기 보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족에게 가사노동을 함께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자녀의 공유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부인의 우애적 결혼관 외에 부인의 높은 가족응집성도 함께 하는 일상적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일상적 가사노동시간이 많다는 것은 부인의 우애적 결혼관과 높은 가족응집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은 가족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가족이 함께 시간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게 되는데, 요구하는 공유활동이 일상적 가사노동이라는 점"은 이 활동이 갖는 공유의 의미를 재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부인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을수록 가족공유의 가사노동이 많다는 것은 가족이 함께 하는 가사노동이 자녀의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첫 자녀의 연령, 남편의 우애적 결혼관, 남편의 취업역할 중요도, 부인과 남편의 가족 응집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남편의 결혼관과 자녀돌보기시간과의 정적 관계를 보면 결혼에 대한 남편의 우애적 지향성이 높다는 것이 남편의 진보적 성역할태도와 연관지어 볼 때, 남편이 자녀양육을 부

인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부부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남편의 취업역할 중요도의 부적 영향은 남편이 직장과 관련된 역할에 몰두한다고 인식할수록 가족공유의 시간은 소홀하게 됨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돌보기에 그 영향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부인의 가족응집성과 남편의 가족응집성이 부부의 자녀 돌보기시간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돌보기 활동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다른 성격의 활동으로 인식된다는 사실, 즉 어머니에게는 의무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반해 아버지에게는 선택에 의한 결과로서 즐거움이나 만족을 줄 수 있는 반여가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Horna, 1989)에 기인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장보기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표 3>에서와 같이 첫자녀의 연령, 남편의 제도적 결혼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의 방향성을 보면 첫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남편의 결혼에 대한 제도적 지향성이 낮을수록 가족이 함께 하는 장보기시간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첫자녀 연령의 영향은 가족의 장보기시간이 자녀돌보기 기능과 병행하여 이루어진 결과, 즉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자녀를 돌봐야하는 상황적 조건에 의해 가족이 함께 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한편 남편의 제도적 결혼관의 부적 영향은 남편의 높은 제도적 결혼관이 갖는 남편의 보수적인 성역할태도가 가족이 함께 하는 여러 활동 중 장보기활동의 낮은 참여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부모 자녀의 공유 여가시간

부모와 자녀가 적극적 여가를 함께 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첫자녀의 연령, 부인의 취업여부, 가계소득, 남편의 제도적 결혼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첫자녀의 연령과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적

2)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자녀의 적극적 여가 공유시간이 가계소득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3)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편의 가족역할 중요도는 부모-자녀의 공유활동 중 장보기를 제외한 모든 활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데, 이 중 일상적 가사노동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극적 여가시간과의 부적 관계는 적극적 여가활동의 대다수가 자녀가 어린 경우 자녀의 동반이 불가피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대한 요구로 작용함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여가활동의 초점이 자녀에게 있으며, 부모역할과 관련된 활동이 부모기에 상당정도 증가하는데, 특히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는 선행연구(Holeman & Epperson, 1984)와 어느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가계소득과 부모 자녀의 적극적 공유여가시간과의 정적 관계는 가족의 적극적 여가활동이 정상재, 즉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점점 더 늘어나는 고가의 오락시설, 패밀리 푸드 레스토랑, 헬스클럽 등에 의해 여가가 점점 더 상업화되는 추세와 관련지어 볼 때, 부모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적 여가활동의 대표적인 외식이나 야외나들이, 취미·오락활동 등에 대한 가족의 요구증가는 더 많은 가계소득을 필요로 함에 따라 시간과 금전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부모자녀의 공유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편의 제도적 결혼관의 영향은 가족유형을 전통적인 가족과 동료애적인 가족으로 구분하였을 때 전자의 가족유형이 가족여가시간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Orthner, 1974, 1978; Holeman & Epperson, 1984)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부모 자녀의 대화·단란시간을 분석한 결과 자녀수, 부인의 취업여부, 남편의 취업역할 중요도, 부인의 가족응집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자녀수가 적을수록 부모자녀의 대화시간이 많다는 것은 자녀수가 많을 때 자녀끼리의 관계형성에 의해 오히려 부모자녀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남편의 취업역할 중요도의 영향은 남편이 취업관련 역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경우 자연히 가족에 대한 몰입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가족과의 대화와 단란에 남편의 시간을 더 적게 배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인의

가족응집성과의 정적 관계는 부인의 가족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이 가족간의 대화에 반영됨을 나타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모 자녀가 함께 TV를 시청하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첫자녀의 연령, 부인의 교육수준, 부인의 취업여부, 남편의 취업역할 중요도, 남편의 가족응집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첫자녀의 연령과 부인의 취업여부는 부모자녀의 공유를 결정하는 상황적 조건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심리적 변수 중 남편의 취업역할 중요도의 정적 영향은 남편이 취업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공적 영역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고 상대적으로 가족에 대한 몰입도는 낮아지는데, 그 결과가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의미를 갖는 가족간의 대화나 단란보다는 소극적이고 휴식의 의미가 강한 TV시청의 가족공유로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편의 가족응집성이 낮을수록 TV시청시간이 길어진다는 결과 역시 TV시청의 공유가 갖는 특성, 즉 시간을 공유하는 동안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의 개방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고 휴식의 의미가 강한 TV시청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부모자녀가 함께 TV시청을 하는 것이 곧 가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3. 부모자녀의 공유시간의 유형화와 집단의 특성

1) 부모자녀의 공유시간의 유형화

부모자녀의 공유양상을 유형화하기 위해 세가지 생활시간 영역을 고려해 볼 때, 공유 가사노동시간은 공유시간의 일반적 경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생활시간영역에 비해 주당 평균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동일한 차원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여가시간의 경우 앞서의 분석에서는 공유활동의 성격에 따라 대화·단란과 TV시청을 구분하였지만, 대화·단란시간 주당 평균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유형화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에 관한 선행연구(한경미·황덕순,

1990;이기영 외 2인, 1995)의 분류를 토대로 부모자녀의 공유양상을 유형화하기 위해 세가지 생활시간 영역 즉, 식사, 소극적 여가활동, 적극적 여가활동을 유형화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적극적 여가활동은 일반적 경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부모자녀가 세가지 생활시간영역에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말의 부모자녀 공유시간으로 한정하여 세가지 생활시간영역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먼저 유형화된 세집단의 빈도를 살펴보면 1집단이 전체의 78.8%, 2집단이 12.8%, 3집단이 8.4%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이 1집단에 편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유형화된 세집단이 세가지 생활시간영역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MR-test를 하였다. 유형화된 세집단 각각의 공유양상의 특징을 보면 <표 4>에서와 같이 1집단의 경우 공유식사시간이 2시간 8분, 소극적 여가시간이 3시간 21분, 적극적 여가시간이 57분으로 나타나 다른 두집단에 비해 대체로 공유시간이

낮은 편이다. 또한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보면 공유식사는 평균과 비슷하지만, 소극적, 적극적 여가시간 모두 평균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2집단의 경우는 공유식사시간이 3시간 2분, 소극적 여가시간이 9시간 46분, 적극적 여가시간이 56분으로 나타나 다른 두집단보다 공유식사와 소극적 여가시간이 많은 편이다. 3집단은 공유식사시간이 2시간 8분으로 1집단이나 전체 평균과 비슷하지만, 소극적 여가시간은 1집단보다 많고 2집단보다는 적으며 전체 평균과는 비슷한 4시간 23분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집단의 특성은 적극적 여가시간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른 두집단보다 훨씬 많은 8시간 16분으로 나타나 빈도는 적지만 다른 집단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세집단의 특성에 따라 1집단을 공유 취약집단으로, 2집단은 소극적 여가집단, 3집단은 적극적 여가집단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2) 공유 유형별 특성

유형화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선정된 사회인구학적 변수, 사회심리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과 DMR-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전업주부의 가정에서만 사회

<표 4> 각집단의 생활시간영역별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의 일원분산분석

(N=335)

생활시간영역 집단(빈도 : %)	식 사		소극적 여가활동		적극적 여가활동	
	평 균	DMR	평 균	DMR	평 균	DMR
공유 취약집단(264 : 78.8)	2시간 8분	A	3시간 21분	A	57분	A
소극적 여가집단(43 : 12.8)	3시간 2분	B	9시간 46분	B	56분	A
적극적 여가집단(28 : 8.4)	2시간 8분	A	4시간 23분	C	8시간 16분	B
전체 평균시간	2시간 15분		4시간 15분		1시간 33분	
F값	10.02***		157.48***		270.62***	

*** p<.001

4) 유형의 수를 2집단, 3집단, 4집단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2집단으로 유형화될 경우 세가지 영역에 관계없이 가족 공유시간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구분되어 기준이 된 생활시간 영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4집단으로 유형화될 경우 3집단으로 유형화될 경우보다 훨씬 더 한 집단에 편포되는 양상을 보여 이 역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유형별 특성의 일원분산분석

(N=335)

집 단	첫자녀의 연령			부인의 우애적 결혼관		
	전업주부 가정		취업주부 가정	전업 주부		취업 주부
	평균(빈도)	DMR	평균(빈도)	평균	DMR	평균
공유 취약집단	14.47(118)	A	11.43(146)	17.99	A	18.64
소극적 여가집단	12.97 (30)	AB	9.54 (13)	18.30	AB	19.85
적극적 여가집단	9.31 (13)	B	12.13 (15)	20.00	B	19.47
F값	2.89*		0.54	2.87*		1.13
집 단	부인의 가족응집성			남편의 가족응집성		
	전업 주부		취업 주부	전업주부의 남편		취업주부의 남편
	평균	DMR	평균	평균	DMR	평균
공유 취약집단	40.08	A	42.26	39.06	A	40.93
소극적 여가집단	40.57	A	42.31	40.47	AB	38.23
적극적 여가집단	45.08	B	44.07	44.08	B	41.73
F값	4.06*		0.61	3.77*		1.41

* p < 0.05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 자녀의 연령이 비교적 어리고 부인이 결혼에 대해 우애적인 측면을 지향하며, 남편과 부인의 가족응집성이 높은 전업주부의 가정이 다른 집단보다 적극적 여가활동을 많이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공유 유형의 특성은 객관적 조건, 즉 부인의 취업여부와 첫 자녀 연령 뿐 아니라 이와 함께 부인의 우애적 결혼관, 남편과 부인의 가족응집성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 더욱 뚜렷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을 가장 중요한 사회의 기본 단위로 생각할 뿐 아니라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가족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토대가 자본주의사회로 접어들면서 과거와 많이 달라진 현재, 가족의 정서적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의 한편에서는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부작용의 결과로 많은

가족이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의 공유시간, 그 중에서도 부모자녀의 공유시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의 공유시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유식사시간으로 주당 5시간 40분, TV시청시간이 약 8시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가족의 일상생활, 즉 가정생활은 개인생활 중심의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일 뿐 아니라 가족공유가 있다고 해도 가족이 함께 밥먹고 TV보는 등 소극적 공유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족 내부의 동기요인에 의한 점도 있지만 이 보다는 외부적 환경의 영향, 즉 장시간노동이라는 상황적 조건에 따라 가족생활에서 요구되는 측면이 노동력 재생산의 휴식적 측면만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여가의 상업화와 같은 제반 사회적 환경의 영향도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둘째, 부모자녀의 공유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자녀의 연령과 부인의 취업여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가지 변수가 가족의 다양한 공유를 결정하는 상황적·객관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모자녀의 공유에 미치는 영향의 방식은 다소 상이하다. 첫자녀의 연령은 부모자녀의 공유양상이 가족의 내적 조건, 즉 가족의 발달과정상의 한 표현임을 잘 반영해주는 것이며, 부인의 취업여부는 시간의 제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모자녀의 공유시간은 자녀수, 가계소득, 실물자산, 교육수준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가계소득이나 실물자산은 부모자녀의 공유의 성격을 판가름해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 특히 가계의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부모자녀의 공유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추측가능하게 해준다.

셋째,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가치관 역시 부모자녀의 공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사회심리적 요인의 영향은 남편의 결혼관에서처럼 의도적인 노력과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자녀의 공유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통해 공유활동의 특성을 잘 파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가족원집성과 공유시간의 관계를 통해 동일한 활동이라도 누구와 함께 공유하는가에 따라 공유활동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이러한 차이가 특히 남녀간의 성역할분업 이데올로기의 한 단면을 반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공유모습이 가족의 결속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약화시키는가를 통해 가족정체감의 실증적인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자녀의 공유시간을 유형화한 결과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유형화된 새집단 중 적극적 여가집단은 자녀의 연령이 다른 집단에 비해 어리고 전업주부가정이며, 남편과 부인의 가족응집성이 높을 뿐 아니라 우애적 결혼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조건과 아울러 가족원의 가치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의 가족은 부모자

녀의 공유를 제약하는 환경의 변화-예를 들면 부인의 취업증가, 남편의 장시간 노동, 남편의 취업역할 중요도 등-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유양상을 통해 가족의 결속이나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의 지향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시간이라는 객관적 도구를 통해 가족의 일상생활을 포착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 중 부모자녀의 공유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시간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가족의 일상생활을 파악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유시간의 개념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활동에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따라 공유의 질적 측면이 미흡한 한계점이 있다. 즉 가족원이 활동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상호작용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가족이 함께 하는 TV시청의 경우도 TV를 보면서 가족간에 대화를 얼마나 하는지, 가족이 주로 보는 TV의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또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해서 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동일한 시간을 부모자녀가 공유하더라도 그것이 가족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부모자녀의 공유 의미를 보다 자세히 읽어내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권희완(1992).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35-70.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 김문겸(1993). 여가의 사회학. 서울 : 한울아카데미.
- 백육인(1994). 대중 소비생활구조의 변화. 경제와 사회 21호, 45-69. 한울.
-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5).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 유영주·이순형·홍숙자(1993). 가족발달학. 서울 : 교문사.
- 이기영·김외숙·구혜령(1995).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3-126.
-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이기영 · 송혜림 · 이승미 · 민순선 · 서지원(1996). 도시 남성근로자의 생활시간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97-112.
- 이성희(1996). 미혼 남녀가 인식하는 부부관계 개념의 성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83-102.
- 이승미(1996). 맞벌이부부의 여가시간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63-75.
- 이연숙(1996). 가족체계내 역동성요소에 근거한 가족 유형에 따른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4(4), 295-308.
- 정현숙(1991). 가족학 연구와 발달적 접근. 가족학연구의 이론적 접근-미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171-196. 서울 : 교문사.
- 최연실(1996). 가족적응력 · 응집성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1-146.
- 한국여성연구회(1995). 여성학 강의. 동녘.
-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5.
- Blau, F. D. & Ferber, M. A.(1986).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 문숙재 · 김순미 · 정순희 공역(1994). 서울 : 학지사.
-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가족자원관리 : 원리와 적용. 가정관리학연구회역(1991). 서울 : 한울 아카데미.
- 八代尙宏(1993). 결혼경제학. 이균 역(1994). 한국경제신문사.
- Bryant, W.B. & Wang, Y.(1990). Time Together, Time Apart: An Analysis of Wives' Solitary Time and Shared Time with Spous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89-119.
- Freysinger, V.J.(1994). Leisure with Children and Parental Satisfaction : Further Evidence of a Sex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Adult Roles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3), 212-226.
- Holman, T.B. & Epperson, A.(1984). Family and Leisure : 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Research Recommenda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6(4), 277-294.
- Horna, J.L.A.(1989). The Leisure Component of the Parent Rol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1(2), 228-241.
- Kelly, J.R.(1975). Life Styles and Leisure Choices. *The Family Coordinator* 24, 185-190.
- Kelly, J.R.(1978). Family Leisure in Three Commun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0, 47-60.
- Linder, S.(1970). *The Harried Leisure Clas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Olson, D.H., & McCubbin, H.I. (1983).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Inc.
- Orthner, D.K.(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91-102.
- 天野 寛子(1988). 親子の共有時間, 生活時間と生活様式, 伊藤セツ · 天野寛子 共編著, 光生館, 102-121.